

## 같이 보기

: 현대건설(주) 포항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 현대건설(주) 포항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

현대건설 포항 초곡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로 18개 동 1,86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현장이다. 현재까지 공정을 3.08%를 달성중이고 올해 7~8월 최대 출력 인원 600~700명을 동원할 예정이며, 2024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이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실현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민우 안전팀장과 김주희 보건관리자를 만나보았다.

글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 김주희 보건관리자

“신규자 교육 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노동자 보호구 착용입니다. 용접작업 시 방진 마스크 착용,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는 귀마개 착용,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 착용을 강조합니다. 시력, 청력, 호흡기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건설 현장이다 보니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교육 후 출근하시는 노동자께서 먼저 보호구를 지급해 달라고 하실 때가 보건관리자로서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 김민우 안전팀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 높아져 안전관련 보호구는 잘 착용하는데 보건관련 귀마개, 방진 마스크, 보안경은 작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미착용하는 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교육할 때나 수시로 노동자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 건강한 일터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아침부터 안전교육장은 신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교육으로 분주하다. 이 교육에서 안전한 건설문화를 위해 현대건설 자체적으로 규정한 12대 안전규범, 그 외 회사의 규정 및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 노동자 작업환경 취급 물질에 따른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이 제법 걸리는 교육이지만 노동자의 건강, 안전, 생명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하는 데도 안전 수칙을 위반한 노동자는 ‘아웃시스템제도’를 두어 현장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작업 전 노동자들은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정상 혈압 확인 후 작업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다. 지금은 날이 따뜻해져서 고혈압자가 제법 줄었지만, 겨울에는 추운 날씨 탓에 혈압이 높은 노동자가 많이 발생한다. 혈압이 정상 수치인 노동자만이 현장에 갈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혈압 노동자의 경우엔 한 시간 따뜻하게 휴식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한다거나 근처 병·의원을 방문하여 작업을 해도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현장 작업을 하게끔 하고 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함께 일하다 보니 코로나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출근 시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안전모에 정상체온 스티커 부착을 하고 이상 발열이 있을 경우 노동자 작업열외권을 신청하도록 한다. 실제로 발열이 난 노동자가 즉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전체적인 확산을 막기도 하였다.

66

안전한 건설문화를 위해 현대건설 자체적으로 규정한 12대 안전규범, 그 외 회사의 규정 및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 노동자 작업환경 취급 물질에 따른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9

## 같이 보기

: 현대건설(주) 포항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

### 노동자 중심의 안전 문화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은 법규상으로 안전관리자 5명, 보건관리자 1명으로 운영해도 문제없지만 안전보건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진 만큼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플러스원 제도'를 구축하여 법규상 인원보다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총 7명의 팀원이 현장 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작업안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해 현대건설은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고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에서는 교육 및 철저한 현장점검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자의 시간대를 정해 한 사람이 매일 2번 이상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현장 내 노동자의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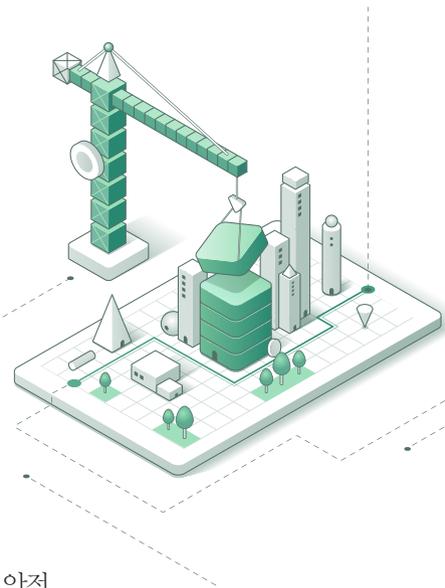
현대건설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3가지 아이템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3가지는 ▲작업열외권 ▲작업중지권 ▲안전신문고이다. 우선 '작업열외권'은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상태이상 및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작업 전 열외로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한다. 노동자의 노임도 손실되지 않도록 협력사와

66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에서는 교육 및 철저한 현장점검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자의 시간대를 정해 한 사람이 매일 2번 이상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다.

99





약속했다. 두 번째는 ‘작업중지권’이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다. 국민신문고처럼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안전, 보건, 시공 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개선한다는 취지다.

#### 김민우 안전팀장

“지금까지 23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몸소 부딪히면서 일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강압적으로 해서 얻는 결과보다는 대화와 소통으로 부드럽게 풀어내는 결과가 더 오래가고 좋은 에너지를 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배려와 관용으로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초곡 힐스테이트는 준공일까지 무재해 건설 현장을 실현할 것입니다.”

#### 김주희 보건관리자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건강디딤돌 사업으로 노동자들의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디딤돌 사업이 7월 이른 시기에 마감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건강디딤돌 사업 예산을 증대시켜 연말까지 조금 더 많은 건설 현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건강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곳에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민우 안전팀장과 김주희 보건관리자의 세심한 안전보건관리,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같이 일하는 팀원의 협조 덕분에 앞으로 초곡 힐스테이트 현장은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이 되리라 본다. ☺